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구현,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



## 대한체육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패러글라이딩 단체 통합 관련 답변 요청

1. 통합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설립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는(제17차 보고) 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이하 연합회)와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이하 협회)가 대한민국항공회(이하 항공회)로부터 탈퇴를 하고 연합회와의 통합에 있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양 단체가 통합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 단체는 통합 과정에서 명확히 합의를 하지 아니한 채 양 단체가 각각 법인 설립 총회를 개최 하였고,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 설립 허가 요청하였습니다.

2. 협회는 (구)대한체육회나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직접 회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및 지역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없음을 사유로, 단지 형식적 통합을 통하여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자격을 확보한 이후에 협회의 일부 임원이나 일부 회원이 별도의 패러글라이딩 단체를 창립하고 다시 항공회의 산하 단체로 가입을 한다면 양 단체 통합이 의미를 상실하고 무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패러글라이딩 단체의 통합은 양 단체의 사·도회원단체 및 동호인(회원) 등이 새롭게 통합된 패러글라이딩 단체에 오로지 소속되고 활동하여야 온전한 통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 단체의 온전한 통합을 위한 선행 조건은 향후 통합패러글라이딩 단체의 회원은 누구라도 별도의 패러글라이딩 단체를 구성하여 항공회의 산하 단체로 재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확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협회는 위와 같이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회원의 승계 동의, 2016년04월12일에 합의한 통합 단체의 명칭과 임원의 구성(협회 4명) 및 협회 임원은 선거인단에서 선출한 신임 회장의 집행부(임원)부터 포함한다는 합의내용 수용여부를 2016년06월30일 까지 연합회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거나 더 많은 새로운 조건을 요구한다면 체육회는 협회의 주장과 답변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연합회가 실시한 창립총회를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것이니 협회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합회는 위 3호에서 요구한 협회의 답변 내용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 신청과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업무 등을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대한체육회장



수신 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장,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장

★과장 양우영 부장 이옥규 본부장 유정형 전결 06/21

협조자

시행 종목육성부-2100 ( 2016.06.21. ) 접수 ( )

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방이동, 대한체육회) / [www.sports.or.kr](http://www.sports.or.kr)

전화 02-2144-8062 /전송 02-413-4283 / [goodman8688@sports.or.kr](mailto:goodman8688@sports.or.kr) / 공개